

그 때 그 태양은 그대로인데

윤 호 기

2015년5월12일 오늘은 본인의 팔순을 맞는 아침.

창문틀 사이에서 코 끝을 스치는 아카시아 향기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푸른 원 근 산들을 보면 조국수호에 몸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
신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6월이 다가온다.

자연의 질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늘진 곳까지 찾아와 진달래를 피웠
다. 우리나라의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 아닌가. 특히 지난날 항일 빨
치산 활동이 한창일 때 병사들의 허기를 모면케 해 주었던 꽃이다. 진달래꽃
만 보면 처연한 기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어릴 적 고향에서는 진달래란 이름
보다 참꽃이 더욱 친숙했었다.

봄에 참꽃이 필 즈음이 가장 배고픈 시기였다. 꽃잎으로 주린 배의 허기를
달랬다. 보릿고개라 불렀던 결핍과 궁기(窮氣)로 인한 영양실조로 마른버짐
과 도장버짐이라는 일종의 피부병이 얼굴에 동그란 흰 반점을 새겨놓았다.
배고픔의 그림자와 공생(共生)했던 그 당시 유일하게 기댈 곳은 들판에 자라
는 보리알이었다.

해방이 된 1945년,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민족감정에 부응이
라도 했는지 계절도 잊은 8월 빼앗긴 들에 진달래가 꽃 등불을 밝혀 주었다.
꽃잎 위로는 태극무늬의 나비들이 날개가 처지도록 전 국토에 바람자락들을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그 환희의 열광도 잠시, 극도의 궁핍 때문에 초등학교 6년의 공교
육을 끝으로 제도권 공부를 마쳐야 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인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전국토의 하늘에는 화약의 빗줄기가 쏟아졌다. 다 같은 조
국의 하늘 아래서 부모자식, 형제자매간에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으니 처절한
전쟁 뒤에 남은 것은 결국 초토화된 금수강산뿐이었다. 달빛의 그늘에서 태
평전야 같은 찬바람으로 한 민족을 두 갈래로 갈라놓은 휴전선 장벽이 아직
도 가로막혀 서로 대치하고 있다.

한 세기에 어둠의 터널을 두 번이나 겪은 청소년 시절, 세상의 모든 문들
이 내게만 닫혀 있는 듯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철이 들고부터
사회를 보는 창(窓) 속에서 어떤 이는 등불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림자로
만 사는 천양지차의 삶을 보았다.

희망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천이래야 썩은 새끼줄을 움켜쥐는 것뿐

이었다. 작은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가 먼 바다를 헤엄치는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개천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 꿈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다. 신문은 가장 적은 돈으로 세상을 보는 눈도 높여주었고 가슴에 들어오는 생각도 깊어지게 했다. 나는 신문에서 많은 사건과 다양한 지식층을 만나 비형식, 무형식적으로 빈 머리를 채워주는 정보를 얻는다. 신문은 내 나름의 지식으로 발전시켜 준 고마운 존재이다. 그래서 신문의 잉크 냄새를 접할 수 없는 휴간일 아침에는 어쩐지 허전한 하루를 참고 지내야 했다.

건국 초기의 국민 대다수는 제도적인 교육만을 제대로 된 교육인 양 여겼다. 최종학교 사다리가 인격의 평가기준이 되어 사회 전반에 지배층의 중심으로 군림했던 시대를 겪었다. 나는 항상 자신에게 결여된 것을 채우려는 욕구가 삶의 밑바탕에 잠재되어 있었다.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가두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때마다 지혜를 담아 올리려면 가방끈이 아니라 살아온 복합적인 연륜이 익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린 두레박은 물에 닿지 못한다는 논어의 글귀를 떠올렸다. 그 가르침은 내 삶의 보석 같은 철학이 되었고 세상을 보는 눈을 크게 뜨게 한 동인(動因)이 되었다.

5월 21일, 오늘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다.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만고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되씹어 봐야 할 뜻 깊은 날이 아닌가. 부부란 사랑으로 결합된 남녀를 통해 만들어진 계량할 수 없는 부피를 지닌 사이일 터이다. 무형의 공간에서 불박이장인 가족은 우리 가정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기도 하며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감이 묻어나는 관계이리라. 가족은 기쁨도 슬픔도 영원히 같이해야 하는 울타리일 터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관계의 윤택유는 사랑과 웃음 아닐까. 밥상을 사이에 두고 웅기종기 모여 된장찌개에 다 같이 숟가락 담그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깊어간다.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자란 가족 간의 밥상머리 대화는 행복 바이러스로 기쁨을 채워준다. 아내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생복에 마스크까지 걸쳤었다.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할 때 뚜껑을 지키는 검색대도 아내의 몫이었으며, 내 가정의 중심기둥이 되어 일상을 의무와 책임으로 자식들의 앞날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넓고 단단한 디딤돌인 희망의 사다리를 걸쳐준 것도 아내였다. 나 자신은 밤이 낮으로, 낮이 밤으로 생체리듬이 혼돈된 조각난 삶을 살았다. 그러다 징검다리를 건너는 순간 수문이 열려 큰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칠전팔기 하는데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온 시련을 겪었던 그때를 뒤돌아본다.

우리 부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했지만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개천의 작은 용이라도 되어준 자녀들을 위한 즐거운 노예생활이었다. 돌이켜보니 그 때가 우리 가족 속에 피어난 파릇한 봄날이었던 것 같다.

그 처절한 보릿고개 동안 공생했던 가난을 이겨내고 바라던 바를 이룬 우리 부부, 이제 배낭을 내려놓고 붉은 경고등이 켜진 산수령 정상에서 살아온 여정의 정체성에 대해 돌이켜본다. 황금 같은 시대의 조류를 잇고 돈의 노예가 되어 꽃이 피고 지는 계절도 모른 채 오직 성취감에 내몰려 바퀴 속에 갇힌 다람쥐처럼 살아왔다. 요즈음은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한 고통에서 해맨다. 아내는 지금 온갖 성인병에 시달린다. 병을 이겨내려고 먹기 역겨운 수많은 종류의 약으로 겨우 지탱해 내고 있다. 그 모습이 내게는 애면(哀面)으로 와 닿는다. 그럴 때면 고독이라는 병이 새치기로 접근해 와 좌고우면(左顧右盼) 그늘 속에서도 머릿속에 불박이로 자리 잡고 놓아주질 않는다.

우리 부부는 시곗바늘처럼 밤낮을 같이하는 황혼 길을 걷고 있다. 둘은 한 순간도 쉴 틈 없이 영원을 똑딱이는 두 개의 시곗바늘이다. 손을 누가 먼저 놓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오늘따라 이해인 시인의 '반려자'라는 시가 몸속을 파고든다. 그 글귀가 내게 짙은 정감을 느끼게 한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 같은 가족의 모임도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듯하다. 짧은 인연으로 만난 가족들과 긴 이별을 앞두고 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도 종말은 봉어뺨 짝듯이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을 지우고 담담히 떠날 준비를 한다.

우리가 겪는 술한 세상사는 세월이 가면 잊히기 마련이건만, 4대가 살다가 자녀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고 아름다운 전설처럼 가슴속에 불박이로 닿아 있다. 평생을 불렀어도 변함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는 오십여 년이 흘러가도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 그대로이다.

계절에 따라 피는 작은 들꽃이라도 살아 숨 쉬는 꽃에는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데, 그림 속의 꽃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웃고 있는 입속에는 생기가 없다. 가족사진이라도 거실 벽에 밤낮으로 붙잡아 두고 미소로 가족애를 확인하고 있다.